



## 염쟁과 실쟁 사이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6년 8월 15일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영적 전쟁 중 하나는 이슬람 테러리즘과 지하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영적인 면과 자연적인 면이 모두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계시록 13:1~2의 '짐승' 이라고 불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짐승의 예슈아의 재림으로 결국 파하여 질 것이기 때문에(계 19:19~20),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의로운 자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연개 자연적 측면에서 두 명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표지 부시,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 에우드 올메르트입니다. 거듭나 예슈아를 믿고 성령으로 깨움 받은 우리들은 모두 이 전쟁의 영적 부분을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의 영적인 측면에는 다음의 사상이 포함됩니다. 1. 기도, 찬양과 예언, 2.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 3. 외개, 외애, 그리고 외복입니다.

성경은 군사 전쟁의 승리는 천사들의 싸움의 승리에 달려 있으며, 천사들의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감당하는 영적 전쟁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 28:12, 출 17:11, 수 5:14, 삼아 5:24, 왕아 6:17, 사 37:1~36, 단 10:2~13, 마 25:31, 행 12:5~10, 계 19:11)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자 하는 의지 이상의 승리를 군대에게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악령을 폭탄만 가지고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테러리즘의 범죄적 측면은 그치게 알 수 있지만, 더 위험한 적은 수백만을 세뇌시키고 있는 이슬람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짓말에 맞서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의를 자유케 아리라. (요 8:32)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은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과 낙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우리는 비전의 영적 근원을 알려야 합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들었을 때, (출 17:12)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렸을 때는 임을 잃었습니다. 최근 에스볼라 테러리스트들에 맞서 일어나고 있는 레바논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온전치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했지만, 온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막을 헤매 때, 그들은 불평과 반항으로 하나님을 격노케 했습니다. 우리 믿는 유대인들과 복음주의 크리스천들도 많은 경우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만큼의 승리가 주어진 것도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영적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막 11:23, 마 18:18~19) 우리가 불평과 반항에 우리를 내어주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입을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소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 12:10)

요한 계시록에는 수많은 환란과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인하여 그 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음 구절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 11:17~18, 12:10, 12:12, 15:2, 15:3~4, 16:4, 16:5~7, 18:20, 19:1~2, 19:6~7)

지금의 유전 협정을 분석하려면, 우리는 협정과 실행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정 자체는 굉장이 선한 것입니다. 한편 협정을 실제화하는 것은 굉장이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은 절반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시작되려 합니다.

골프를 치는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끝까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초반부의 승리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는 경향을 고쳐야 합니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처음은 기막히게 잘 나갔습니다. 정부를 이라크 인들에게 이양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이 있었습니다. 테러리즘을 이겨내고 수백만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려면, 첫 빅뱅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 있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최전선 탱크병들의 결과 보고 시간에, 이스라엘 북부 사령관 우디 아담 장군은 “우리는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실상 이라크군의 대규모 사단이었다고 할 수 있을

니다. 우리에게 유전 협정이 있습니다. 좋은 협정이지요. 물론 거기엔 구멍이 있고, 실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좋은 협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완수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 북부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극복하여 경계를 재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의 나머지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전 문서를 읽어보니 저는 25개의 개별적 항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5개 모두 레바논에겐 좋은 것이고, 21개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입니다. 또 4가지는 예스볼라 쪽에 좋은 것입니다. 이 협정은 레바논 국민들과 시니오라 총리의 정부에 기외의 상을 제공합니다. 그 기외와 더불어 오는 것은 책임입니다. 그들은 예스볼라를 무장에게 시키고,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그들의 군대를 감시하고, 전후 복구에 임쓰는 등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스볼라는 벌써부터 유전 협정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를 인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스볼라 정치가들 중에는 레바논 정부에 대해 폭력적이고 엄격한 언행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즘의 주된 무기가 협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첫 협박은 레바논 국민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레바논의 교외와 레바논 국민들, 그리고 그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코피 아난, 프랑스, 또 UNIFIL(레바논 임시 주둔 UN군)은 단순히 반유대주의와 테러 활동을 덮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들이 유전 협정문에 쓰여진 내용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란과 시리아가 예스볼라를 재무장시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방주(傍註)1: 어제 독일 소식통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제공한 첩보가 런던 경찰청이 목요일에 24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하는 데에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런던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열 대의 제트 여객기를 폭파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방주2: 어제 스웨덴에서는 이스라엘의 노장 장대 높이 뛰기 선수 알렉스 아웨르바흐가 유럽 선수권에서 두 번째로 금메달을 땀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아 티크바’가 울려 퍼지는 시상대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스웨덴 선수들을 응원하는 3만 관중들 앞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꺼내어 흔들며 보였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에 어떻게 하면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참고: 이스라엘 언론 보도

여기엔 <이스라엘리 이브루 프레스>의 4개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첨부합니다. 모두 이스라엘 수석 언론인들의 글입니다.

#### 기사 1: 시몬 세페르/ 유전에 대한 드라마

이스라엘 군인들을 짜내로 둔 수많은 어머니들의 레바논에서 철수시키라는 요구가 올메르트 의 개인 전화로 쇄도하여 결국 관리들은 전화선을 끊어 버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시각으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에 올메르트의 사무실에는 유전 협정문의 최초의 사본이 도착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에스볼라의 요구에 대한 양복 문서였습니다. 배우의 엄청난 외교적 노력이 반영되었고, 올메르트의 밀통 요람 투르보비치와 백악관 사통 스티브 애들리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3시, 팽팽한 전화 외담이 있는 뒤 이스라엘 국외 의원들은 그 문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50분, 그들은 남부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확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이면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증재하여 제안된 내용을 이스라엘의 보안 필요에 맞춰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팀은 프랑스 대표단과 새로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30분, 타개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정당이 새 협정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시각으로 안식일 새벽 3시(뉴욕 시각으로 오후 8시), 협정안은 안보 위원회 의원 15명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전 협정안에 대한 표결 이후, 올메르트는 개인적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8분짜리 통화 가운데, 부시는 올메르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전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꼭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결정들이 얼마나 도전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 에스볼라의 배우에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은 사실상 테헤란에서 보내진 투사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파트너이고요.”

올메르트는 부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당신이 어땠을까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제가 어려울 때 힘이 됐어요.” 부시는 후에 푸와드 시니오라 레바논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레바논을 성공적으로 재건에 내려면, 에스볼라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 기사 2: 아이르 코엔 장군/ 나스랄라의 멸망

이번 전쟁에서 사람들이 겪는 엄청난 수난을 바라보며 느끼는 대중들의 고통은 이해할만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게 만드는 실패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 국민은 거미줄처럼 연약하여 공격하기만 하면 무너질 것이고, 특히 병사들을 납치하면 끝장이라는 나스랄라의 착각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산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굴욕을 입어 납치한 군사들을 풀어줄 것이자, 군사 작전을 감행하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지요.

나스랄라는 자신의 군대와 무리들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신은 병커에 숨어있으면서 말이지요. 베이루트에 있던 그의 본거지는 파괴되었고, 남부 레바논의 군사 시설도 부서졌습니다. 24 평생 노력에 얻은 시아파의 레바논 주권 장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래 아랍 세계를 통합하려는 나스랄라의 시도를 사람들은 질색을 하며 거부했습니다. 레바논 여론을 만드는 이들은 이스라엘이 공격에 있어 소위 ‘군영이 없었다’ 고 하는 말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나스랄라를 뜨겁게 비난했습니다. 친 시리아 잡지 <알 사피르>는 “에스볼라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단지 그들의 패배를 미화시킬 뿐이다. 레바논 인들은 나스랄라에게 자신들을 약대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라고 압니다.

드루즈파 지도자 준블라트는 나스랄라가 시리아 파시스트들과 이란 신봉주의에 사로잡힌 이들의 손아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단은 ‘외국의 이익을 위한 자살 문화’ 를 비난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 기사 3: 알렉스 피시만/ 유전의 어려움

오늘 아침에 남부 레바논 언덕에서 일어난 군인들은 새로운 연실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앙 사령부는 오전 7시 쟁각을 기하여 유전을 발아였습니다. 모든 공격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방지 사격’ 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이 보일 때는 어떡하냐고요? 발포하지 않습니다. 쏘기 전에 먼저 확증이 되어야 하는거요. 발사는 방어를 위해 서만 할 수 있습니다. IDF는 북쪽으로 진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기를 수색하기 위해 통제 아에 철저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수색 중에 무장 저항이 발각되면, 발포를 재개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이는 다툼과 마찰이 지속되리라는 뜻이요.

레바논 깊숙한 곳까지 공습하는 일은 멈출 것입니다. 유전 발효 전 몇 시간 동안, 공군은 북부 레바논의 ‘목직한 타깃’ 들에 대한 연쇄 공격을 마쳤습니다.

유전 협정의 구멍 중 하나는 시리아에서 무기를 실은 트럭이 국경을 넘어 다국적군이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협정 위반으로 간주 알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 기사 4: 세베르 플로츠키/ UN 결의안 1701

지난 주말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701의 결정은 유대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거둔 유례 없는 정치적 성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기본 접근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있었던 우리의 군사 행동에 대해 어떠한 고발도 하지 않고 있으며, 압박을 가하는 쪽은 에스볼라로 표면되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해야 하는 우리의 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이전, 에스볼라가 이스라엘에 급작스런 공격을 받았을 때 나스랄라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었고 남부 레바논에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오늘 IDF는 리타니 강 유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지역에 배치되었고, 에스볼라는 자신들도 계속해서 상상도 못했던 만큼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안보리는 '에스볼라의 땅' 으로 15,000명의 UN군을 보낼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레바논 정부와 아랍 국가 연맹은 이 결정에 염소적이었습니다.

전쟁이 없이도 이 같은 결과에 다다를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겠지요. 이스라엘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면, 나스랄라와의 협상에서 죽을 썩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을 정복했다고 칭송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주변인들에게 엄청난 값을 치르게 안 것이요.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 국가 모두가 그것을 압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북부는 왕폐와되었고 이스라엘에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볼라는 아무튼 살아남았고요. 올메르트-페레스 정부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용서 받지 못할 것들도 있습니다. 결의안 1701에는 많은 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작성된 대로만(납치된 병사들의 귀환을 포함하여) 실행된다면, 이스라엘과 자유 레바논에는 엄청난 전략적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번역: 고병연